

# 2017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 정답 및 해설

### • 1교시 국어 영역 •

1	3	2	4	3	2	4	2	5	4
6	5	7	5	8	1	9	3	10	5
11	3	12	3	13	4	14	5	15	5
16	5	17	5	18	3	19	5	20	4
21	1	22	2	23	1	24	5	25	3
26	5	27	5	28	2	29	2	30	4
31	4	32	1	33	5	34	5	35	3
36	3	37	3	38	1	39	1	40	4
41	2	42	4	43	1	44	5	45	3

### [화법]

#### 1. [출제의도] 토론의 과정 이해

'반대 1'은 '찬성 1'의 반대 신문에 대해 SNS상의 소통이 절분과 답변이 연속적으로 오가고,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선거 운동 참여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을 뿐 기존 방식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찬성 1'은 작년에 선거 운동에 참여했던 자신의 과거 경험을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찬성 1'은 '반대 2'의 반대 신문에 대해 SNS 사용에 대한 실제 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답변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찬성 2'는 후보자가 학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기존 선거 운동 방식의 문제점을 들어 SNS를 활용하면 후보자와 학생들 간의 소통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도입 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반대 2'는 SNS를 선거 운동에 활용하면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찬성 측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2 [출제의도] 토론의 반박할 내용 마련하기

'반대 2'는 입론에서 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은 비방과 거짓 정보를 확산시키는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거짓 정보의 확산이 SNS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은 반대 2의 입론 내용의 허점을 끌어내는 질문이므로 반대 신문으로 적절하다. ① '반대 2'의 입론에서는 선거 운동에 SNS를 활용하면 비방과 거짓 정보가 확산되는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는 점을 이미 제시했으므로 반대 신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반대 2'의 입론에서는 SNS에 의한 비방과 거짓 정보 확산, 과열 경쟁에 대한 학교 차원에서의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반대 2'의 입론에서는 기존 선거 운동 방식과 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 방식에서의 거짓 정보 파급력의 정도를 비교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반대 2'의 입론에서는 비방과 거짓 정보에 의한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3. [출제의도] 토론의 자료 활용

'찬성 2'는 학생회장 선거에 SNS를 활용하면 후보자와 학생들 간의 소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보기>의 '동원이론'에서는 인터넷이 상호 작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① SNS를 통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은 '찬성 2'의 입론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의 '동원이론'에서 인터넷이 전자적 피드백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고, '반대 1'의 반대 신문에 대한 '찬성 2'의 답에서 SNS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소통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이를 '찬성 2'에 대한 반박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보기>의 '동원이론'에서 인터넷이 정보 습득을 용이하게 한다는 내용과

'반대 1'의 주장인 SNS를 선거 운동에 활용하면 기존 방식보다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반대 2'가 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에 모든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작문]

#### 4. [출제의도] 글쓰기의 전략 파악하기

3문단의 '이러한 문제가 ~ 무엇일까?', '먼저 ~ 하나의 원인이다.'에서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독자에게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5.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를 보완하기

I-2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주저하는 원인 중 하나가 자금 부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III에서는 해외의 경우 정부가 심사를 통해 금융권 대출을 용이하게 해 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이 창업 자금 지원 제도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I-1은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두 배 이상 증가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I문단에서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I-2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주저하는 이유 중 재기 부담이 61%나 차지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II에서는 청년 창업에서 숙박업, 요식업과 같은 단순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비저숙기반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64%로 높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II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선배 창업 전문가의 인적 교류를 통해 협업과 공동 창업을 유도하는 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III에서는 예비 청년 창업자와 창업 전문 컨설턴트나 투자자와의 인적 교류를 통해 창업이 성공으로 이어짐을 제시하고 있다. 3문단에 제시된 원인을 고려할 때 4문단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II와 III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다.

#### 6.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면 ~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에서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를 언급하고 있고, '청년 실업은 줄어들고 청년 일자리는 늘어나서'에서 대구법, '노력이 열매를 맺어'와 '경제 발전의 토대'에서 비유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①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은 덜어주고 기술 습득에 대한 기회는 늘려 준다'면에서 대구법을 사용하였으나,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가 언급되지 않았고, 비유법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토양'에서 비유법을 사용하였으나,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가 언급되지 않았고, 대구법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더욱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에서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가 언급되었고, '청년들의 꿈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꽃피다'면에서 비유법이 사용되었으나, 대구법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어 취업 걱정은 사라질 것이다.'에서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가 언급되었고, '창업 역량을 높이고 자금 부담을 낮춘다'면에서 대구법이 사용되었으나, 비유법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화법 · 작문]

#### 7.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전략 파악하기

발표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요약된 내용을 나열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 3문단에서 영상을 통해 발표 대상인 실제작 박물관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어떤 전시품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라고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상호작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목소리에 힘을 주어'와 같은 반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하려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1문단에서 '실제작 박물관'과 '실제작'에 대한 자체를 담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작 박물관을 소개한다고 하여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8. [출제의도] 청중의 반응 적절성 판단하기

(가)의 2문단에서 발표자는 해외에 있는 실제작 박물관만을 소개했고, 우리나라에 실제작 박물관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발표를 들은 청중의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실제작 박물관의 원래 명칭을 신제품 작업소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4문단에서 실제작 박물관을 통해 실제작가 흔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고 실제작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박물관이 갖는 의미를 밝히고 있으므로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3문단에서 현재 10만여 점의 제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2문단에서 실제작 박물관의 실제작품을 더 이상 시중에서 볼 수 없다고 했으므로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 9. [출제의도] 작문 내용 구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가)의 4문단에 실제작 정편으로 바라보는 것이 실제작의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 (나)에서 실제작을 숨기려고 했던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5문단에 실제작의 원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나)의 4문단에서 자율 동아리에서 읽을 책의 목록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했던 것과 시간과 장소 안내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실제작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5문단에 실제작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라고 밝히고 있고, (나)의 2문단에서 자율 동아리에서 계획대로 책을 읽지 못하고, 토론 모임의 횡수도 줄어 결국 활동 보고서 제출하지 못했던 경험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5문단에 실제작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라고 밝히고 있고, 토론 모임에 자주 빠진 친구들을 찾아가 설득하는 등 동아리 부장으로서 자신이 한 일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며 자기 인정을 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6문단에서 실제작 속에서 숨어 있는 긍정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실제작 성공의 어머니로 만드는 열쇠라고 밝히고 있고, (나)의 5문단에서 실제작 경험을 통해 내년에는 자율 동아리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㉔의 '내년에는 자율 동아리를 잘 운영할 수'의 생략된 주어는 '내가'이다. 주어 '내가'와 호응하는 서술어는 '운영할'이므로 '운영될'로 수정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① ㉔에는 '읽고'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므로, '책을'이라는 목적어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㉔의 앞의 문장은 읽을 책의 목록을 정한 후 각각 책을 읽고 토론하기로 했다는 내용이고, 뒤의 문장은 활동 일지를 바탕으로 학기말에 최종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앞의 상반된 내용을 이어 주는 접속어 '하지만'을, 앞뒤 내용을 순조롭게 이어주는 접속어 '그리고'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③ ㉔은 문단의 중심 내용인 동아리 부장으로서 내가 한 일을 돌아보는 내용과는 상관없는 불필요한 문장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㉔의 '공정하다'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다'라는 뜻으로, '알려서'와 의미가 중복되므로 '알려서'를 삭제하는 수정 방안은 적절하다.

## [문법]

### 11.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이해

‘맛없다[마딤따]’는 ‘맛’의 받침 ‘ㅅ’이 ‘ㄷ’으로 교체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없-’의 받침 ‘ㅁ’중 ‘ㅅ’이 탈락되고 ‘ㅂ’이 남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다’의 첫소리 ‘ㄷ’이 ‘ㄷ’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므로 ‘교체’와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영염용[영염똥]’은 ‘용’에 ‘ㄷ’이 첨가되는 ‘ㄷ첨가’와 ‘업’의 받침 ‘ㅂ’이 ‘ㄷ’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첨가’와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또한 ‘깨끗하다[깨끄따다]’는 ‘끗’의 받침 ‘ㅅ’이 ‘ㄷ’으로 교체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된 받침인 ‘ㄷ’과 ‘하다’의 첫소리 ‘ㅎ’이 만나 ‘ㄷ’으로 축약되는 ‘자음 축약’이 일어나므로 ‘교체’와 ‘축약’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급행열차[갱행열차]’는 ‘급’의 받침 ‘ㅂ’과 ‘행’의 첫소리 ‘ㅎ’이 축약되어 ‘교’이 되므로 ‘자음 축약’이 일어나고, ‘열차’의 ‘열’에 ‘ㄷ첨가’가 일어나므로 ‘축약’과 ‘첨가’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에는 ‘맛없다’가, ㉡에는 ‘깨끗하다’가, ㉢에는 ‘영염용’이, ㉣에는 ‘급행열차’가 적절하다.

### 12. [출제의도] 사전 활용하기

‘버스’가 고장이 나 승객들이 차표를 도로 물리는 소동이 있었다.’는 물리다’의 용례가 아니라 물리다<sup>3</sup>[1]’의 용례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물리다<sup>1</sup>, 물리다<sup>2</sup>, 물리다<sup>3</sup>은 사전에 별개의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로 동음이의 관계이므로 적절하다. ② 물리다<sup>2</sup>의 경우 [1], [2], 물리다<sup>2</sup>의 경우 [1], [2]를 보아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다의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물리다<sup>2</sup>[1]의 [..에/에게 ...을], 물리다<sup>2</sup>의 [..에/에게]를 볼 때 물리다<sup>2</sup>[1]의 서술어 자릿수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약속 날짜를 이를 뒤로 물리다.’라는 용례를 볼 때 ‘정해진 시기를 뒤로 늦추다.’가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다.

### 13. [출제의도] 부사의 종류와 기능 파악하기

‘아주’는 뒤에 이어지는 관형사 ‘새’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매우’는 뒤에 이어지는 부사 ‘빨리’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설마’는 ‘나에게 맞는 옷이 없을까?’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바로’는 뒤에 오는 명사인 ‘열’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과연’은 ‘그 아이는 재능이 정말 뛰어나군.’을 수식하고 있는 문장 부사이다. 그러나 ‘정말’은 뒤에 이어지는 형용사 ‘뛰어나군.’을 수식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14~15] <출전> 고영근, 「표준문법론」

### 14. [출제의도] 현대 국어의 시제 이해하기

‘이제 나무 아래에서 낮잠은 다 잤다.’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였지만, 그 의미는 ‘앞으로는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잘 수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사건시가 발화시 이후인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는 묘목을 심는다.’는 선어말 어미 ‘-는-’을 사용한 현재형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② ‘묘목이 자라면 나무 아래에서 잘 수 있겠지.’는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사건시가 발화시 이후임을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③ ‘나는 묘목을 심었었지.’는 선어말 어미 ‘-있었-’을 사용하여 시간적으로 거리가 먼 과거를 나타낸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④ ‘나는 나무 아래에서 자더라.’에는 선어말 어미 ‘-더-’가 사용되었는데, 주어가 1인칭인 경우에 ‘-더-’의 쓰임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시제 이해하기

(마)의 ‘닐오리라’는 선어말 어미 ‘-리-’를 사용하여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선어말 어미 ‘-리-’는 현대 국어에서도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명종(命終)호라’는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없이 ‘죽었다’라는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의 ‘똥담하더라’에서 선어말 어미 ‘-다-’는 1인칭 주어 ‘내’와 함께 쓰여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다)의 ‘물노다’는 선어말 어미 ‘-노-’가 쓰여 ‘물은다’라는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라)의 ‘하느니라’는 현재형 선어말 어미 ‘-느-’가 사용되어 ‘하늘이며 사람 사는 땅을 다 모아서 세계’라고 하는 보편적 사실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인문]

[16~20] <출전> 유원기, 「인생교과서 아리스토텔레스」

### 1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2문단의 ‘또한 세계는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로 뭉쳐 있고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지 않고 보았다.’를 보면 파르메니데스는 세계를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뭉쳐 있다고 인식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의 ‘따라서 그는 ~작각 또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간주했다.’를 보면 적절하다. ② 2문단의 ‘그는 그 믿음을 ~말로 표현했다.’와 ‘또한 그는 불꽃이 ~근원적 요소로 보았다.’를 보면 적절하다. ③ 3문단의 ‘플라톤은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한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확립했다.’를 보면 적절하다. ④ 1문단의 ‘그들은 변화하는 현상의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러 학문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와 6문단의 ‘그는 다수의 저술 속에서 ~이는 근대 자연 과학의 발전에 밑바탕이 되었다.’를 보면 적절하다.

### 17. [출제의도] 서로 다른 두 관점 비교하기

3문단의 ‘그는 변화의 실제에 대한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의 상반된 견해를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 세계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를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에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을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②는 3문단의 ‘플라톤은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한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확립했다.’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④는 3문단의 ‘그는 변화의 실제에 대한 ~현실 세계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18.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5문단의 ‘실체적 변화란 실체의 변화 정도가 커서 기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변화를 가리킨다.’와 ‘에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를 보면, ㄴ에서 울팽이가 개구리가 된 것은 실체의 변화 정도가 큰 실체적 변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체가 분명하게 식별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5문단의 ‘비실체적 변화에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장소 변화가 있는데’를 보면 변화 전의 개구리가 다른 장소에서 이동해 온 것은 장소 변화가 나타난 것이어서 비실체적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의 ‘변화란 현실 세계에서 실체의 기저에 깔린 머리카락이라는 기체 위에서 검은색의 형상이 흰색의 형상으로 대체되는 현상과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와 5문단의 ‘얼굴이 빨개지는 등의 질적 변화’를 보면 ㄱ에서 변화 전의 개구리의 피부색이 변화 후와 같이 바뀐 것은 색깔이라는 형상이 대체된 질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5문단의 ‘비실체적 변화에는 ~작은 풍선이 커지거나 살이 찌거나 빠지는 등의 양적 변화’를 보면 ㄷ은 변화 전과 변화 후의 개구리라는 실체의 크기가 양적으로 증가한 비실체적 변화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5문단의 ‘왜냐하

면 모든 변화에서 기체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를 보면 ㄱ, ㄴ, ㄷ은 모두 변화 과정에서 기체가 실체의 기저에 깔려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19.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내용 이해하기

<보기>에서 탈레스는 ‘물’을 만물의 근원인 ‘아르케’라고 보았으며 아르케를 주장한 그리스 철학자라 볼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무에서의 생성과 절대적인 무로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문단의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에서의 생성과 무로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다’를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절대적인 무에서부터의 생성과 무로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20.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은 문맥상 ‘생각 따위를 전개하거나 발전시키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①은 ‘점하거나 개진 것 따위를 넓혀서 퍼다.’를, ②는 ‘퍼서 드러내다.’를, ③은 ‘보고 듣거나 감상할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주의를 끌 만한 상태로 나타내다.’를, ⑤는 ‘꿈, 계획 따위를 이루기 위해 행동하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현대시]

[21~24] <출전> 김기림, 「추억」

신경림,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윤대녕, 「한 그루 나무처럼」

### 21. [출제의도] 표현상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에서는 ‘제비 같은 이야기’, ‘곰팡이처럼 얼룩진 수염’ 등에서, (나)에서는 ‘칠족 같은 어둠’에서, (다)에서는 ‘침묵의 시간으로 돌아간 듯’에서 직유법이 사용되어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는 유년 시절부터 자라면서 ‘대처’로 나옴 ‘면 세상’으로 날아도 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점층적인 방식으로 전개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가), (다)에서는 점층적인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에서 ‘소년일 수 없으나’에서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에서는 ‘보았던가’ 등을 영탄적 표현으로 볼 수도 있으나 (나)에서는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 (나), (다) 모두 병렬형 어미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에서 ‘하지만 멀리 다닐수록, 많이 보고 들을수록 이상하게도 내 시야는 좁아졌다’는 부분에서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가)와 (다)에서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22.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참고해 작품 간 비교하기

(가)는 화자가 ‘또다시 가슴이 뭉근 소년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에서 소년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단절감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나)의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는 것에서 넓은 세상에 대한 화자의 동경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는 ‘그날’과 ‘오늘’에서, (나)는 ‘어려서’와 ‘조금 자라서’, ‘소년 시절’에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에서 ‘이야기는 바다 건너로만 날’었던 모습과 ‘봉해진 입술에는 바다 건너 이야기가 갸니’는 모습에서 꿈이 있었던 소년 시절과 그렇지 못한 현재 모습이 대비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는 어린 시절의 화자가 성장하면서 ‘칸델라를 밀’, ‘전등불 밀’, ‘대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젊은 어머니’와 ‘주름진 할머니의 실루엣’은 화자가 경험한 유년 시절의 모성의 이미지로 대 표되는 가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젊은 어머니’와 ‘주름진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는 것은 유년 시절의 가치로 회귀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시어의 기능 비교하기**

(나)에서 '나'는 '먼 세상'으로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다'를 통해 ㉠은 '나'가 건문을 넓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4.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E]에서 글쓴이는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으므로, 나무를 본받아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나무에 박혀 있는 녹슨 대못'과 '두고두고 그 대못이 가슴에 남았다'를 통해 글쓴이가 연민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B]에서 글쓴이는 '강도리를 쟁겨 넣고 약수터로 올라'가 나무의 못을 빼내고 난 후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C]에서 글쓴이는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있었고 내게 시원한 그늘을 내 주며 때로는 미소를 짓거나 무어라 말을 건네 오는 것 같았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D]에서 글쓴이는 '헐벗은 나무'를 보며 과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과학 · 기술]**

[25 ~ 29] <출전> 박영기, 「과학으로 만드는 자동차」

**25.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이 글은 탄성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의 전환과 진동의 감쇠 현상을 응용한 자동차 현가장치의 스프링과 쇼크업소버의 작동 원리에 대한 글이므로 적절하다. ① 현가장치 스프링과 쇼크업소버의 역사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평형점의 이동 원리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쇼크업소버의 단점은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열에너지의 감소 과정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1문단에서 '당겼던 추를 놓으면 탄성력에 의해 추는 상하로 진동하다가 추를 당기기 전과 동일한 지점에서 멈추게 된다. 이 지점을 평형점이라고 한다.'고 했으므로 추를 당기기 전보다 높은 지점에서 멈추게 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탄성력이나 고무줄이나 스프링같이 탄성을 가진 물체가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탄성력이 탄성이 있는 물체의 길이를 늘이거나 압축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1문단에서 '추를 당기는 힘으로 인해 스프링은 늘어난데 ~ 탄성력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1문단에서 '추의 진동이 공기와 스프링의 마찰 등에 의해 ~ 이를 감쇠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7.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d는 차체가 진동의 최고점에서 평형점으로 수직 하향하고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d는 탄성력에 의해 스프링이 줄어들고 있는 지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추의 진동이 멈춘 곳이 평형점이라고 하였고, 2문단에서 추는 평형점을 지날 때 속력이 가장 빠르다고 했으므로, 차체 진동에서도 평상시의 차체 높이인 a는 평형점이 되며, 이 지점에서 속력이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어 차체 진동의 평형점인 a에서의 차체의 속력이 d에서보다 더 빠르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최고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퍼텐셜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된다고 하였으므로 차체 진동의 최고점인 b가 차체의 운동 에너지보다 스프링에 저장된 퍼텐셜 에너지가 더 많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④ 2문단에서 추의 속도가 0인 최고점을 지난 후 다시 최저점에 도달하는 과정이 반복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최저점도 속

도가 0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차체 진동의 최고 점인 b와 최저점인 c는 스프링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0인 지점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그리고 3문단에서 최저점이 운동 에너지가 완전히 전환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c는 수직 하향하던 차체의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4문단에서 차체가 수직 상향하는 과정에서 피스톤도 차체를 따라 실린더 윗부분으로 이동하고, 피스톤 위의 액체는 피스톤 아래로 이동하게 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에서 차체가 수직 상향할 때, 피스톤은 실린더의 상단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a는 차체가 최저점에서 최고점으로 수직 상향하는 과정에서 차체가 평형점을 만나는 지점이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쇼크업소버는 차체 진동의 진폭을 줄여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차체 이동에 따라 실린더 내 피스톤도 상하로 이동한다고 했다. 따라서 차체가 하향하다 c를 지나면서 상향하게 되면 실린더 내 피스톤도 하향하다 상향하게 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차체가 수직으로 하향할 때 피스톤도 실린더의 하단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때 피스톤 아래에 있던 액체가 구멍을 통해 피스톤 위로 이동하며 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세부 내용 비교하기**

3문단의 '스프링은 진동을 활용하여 지면에서 받는 충격이 차체로 전달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와 4문단의 '쇼크업소버는 차체 진동의 진폭을 줄이게 된다.'로 볼 때 적절하다. ① 스프링이 열을 탄성력으로 바꾼다는 내용은 본문에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4문단에서 쇼크업소버는 차체 진동의 진폭을 줄여준다고 했으므로, 쇼크업소버는 차체 진동의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4문단에서 쇼크업소버의 실린더 내 액체와 피스톤의 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하는 것을 운동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흡수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쇼크업소버에서 열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4문단에서 쇼크업소버의 실린더 내 액체와 피스톤의 구멍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하여 차체 진동의 진폭을 줄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마찰을 억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고전시가]**

[30 ~ 33] <출전> 정극인, 「산중곡」  
작자 미상, 「갑민가」

**30. [출제의도] 내용의 사실적 이해**

1문단 둘째, 셋째 문장을 통해, 길이가 짧은 시조와 구별하여 길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사를 장가라고도 불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② 1문단 둘째 문장을 통해, 가사는 복잡한 체형을 두루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길어질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 첫째 문장을 통해, 임진왜란을 경계로 후기 가사가 시작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을 통해, 가사의 작자층이 확대된 것과 표현 방식이 다양해진 것은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1. [출제의도] 작품 감상하기**

(나)의 '공명'은 자연과 대비되는 속세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다)의 화자는 조상 덕에 '좌수별감'과 같은 직을 수행하였으나 군사 계급으로 강등된 인물이다. 따라서 (다)에는 화자가 사대부들의 경건한 삶을 풍자하는 태도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도화행화'를 감상하고 있지만, (다)의 화자는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존을 위해 '인승책'을 찾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의 '세우'는 '녹양방초'와 어울려 화자의 흥취를 돋우어 주는 역할을 하지만, (다)의 '눈'은 서민인 화자의 고통을 더욱 심화하는 역할을 하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화자는 '봉두'에 올라 '연하일취는 금수를 재밌는 듯'이라 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 있지만, (다)는 화자가 '입승'하여 사냥에 앞서 산신께 빌원하고, 사냥에 실패한 일 등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는 화자가 '단표누항에 훗튼 혜음 아니 흥'며 만족하는 모습을 통해 안빈낙도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보여 주지만, (다)는 화자가 '빈손'으로 표현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겪는 고난을 통해 화자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를 보여 주므로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표현상의 공통점 찾기**

(나)의 '물아일체이니 흥이 다투소냐'와 (다)의 '해마다 맞춰 무니 석승인들 당홍소냐'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는 봄, (다)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지만, (나)는 이상적 분위기를 환기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나)와 (다) 모두 대화의 형식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나)의 '세'와 (다)의 '오갈피알'은 의인화된 대상이지만, (다)는 대상의 긍정적 속성을 부각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와 (다) 모두 의성어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3. [출제의도] 의적 준거를 통해 작품 감상하기**

[E]는 갑민이 돈과 사냥에 실패한 후 겪는 시련을 보여 주는 것이지, 유배를 가는 길에서 겪는 시련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에는 '원승인의 모래' 때문에 갑민의 처지가 바뀌게 되었음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B]에는 친척들이 충군이 된 후 모두 도망가 버리고, 여러 사람의 신역을 갑민 혼자서 맡게 되는 과정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C]는 '허함'처럼 실제 지명을 언급하여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D]에서 갑민이 씨리를 꺾어 누대를 치고 일갈나무로 모닥불을 놓고 산신에게 발원하는 것을 통해 갑산 지역에서 돈과 사냥에 앞서 행하던 민속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소설]**

[34 ~ 36] <출전> 황석영, 「줄자」

**3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이해하기**

'방태홍씨도 ~ 끝날 거였다.', '그날은 ~ 훨씬 미세한 존재인 것만 같았다.' 등을 볼 때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방 씨와 이 전부의 갈등을 주로 방 씨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인물 간의 대화는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분열된 의식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과거에 대한 회상의 장면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삽입되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현학적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5. [출제의도] 인물의 의도 파악하기**

이 전부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실만이란 부당합니다.'라고 한 방 씨의 대답을 통해서 ㉠은 이 전부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은 방 씨가 아닌 이 전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은 이 전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드러내는 것일 뿐 이 전부의 행동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쌍꺼풀 ~근심이 앉았다.’를 볼 때 ㉠은 이 전무의 요구를 수용은 했으나 안도감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태과는 ~ 좋을 대루 하겠소.’라는 이 전무의 말을 볼 때 ㉠은 자신의 요구가 과도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6.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방 씨가 약속이음을 쓰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 전무와 타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전무의 ‘그야 기분문제루 ~ 이웃 사촌이라잖소.’라는 말을 들은 후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되뇌는 것은 그 말의 의미를 떠올려 보는 것일 뿐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짜 구리루’를 ‘외제 빈 값’에 담아 돈을 번 행위는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양심이나 도덕성보다 중요시하는 태도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이웃인 방 씨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웃 사이임에도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고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이 전무의 모습은 법을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시의 시대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집을 둘러싸고 발생한 다툼에서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결국 타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인간적 관계보다는 물질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이 전무의 요구를 부당하다고 여기면서도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 후 생겨난 중기 자국을 보며 자신을 그 아픔과 상처보다 훨씬 미세한 존재라고 느끼는 것에서 상처를 통해 자신의 소시민적 모습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사회]**

[37 ~ 41] <출전> 권오상, 「환경경제화」

**37.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법 파악하기**

이 글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주요 환경 정책 중 하나인 간접 규제 방식을 설명한 글로, 경제적 유인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부과금, 보조금, 예치금 제도를 소개하고, 각 제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이 글에서 규제 절차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이 글은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접 규제 방식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철중안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8문단을 보면 예치금 제도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예치금 제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5문단을 보면 ‘배출부과금 제도는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5문단의 ‘제품부과금은 ~배출부과금에 비해 떨어지나 정보 획득을 위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1문단의 ‘경제적 유인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간접 규제 방식’, ‘부과금, 보조금, 예치금 등’을 보면 보조금 제도와 예치금 제도는 간접 규제 방식으로 경제적 유인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유도하므로 적절하다. ⑤ 8문단의 ‘소비자 예치금은 ~예치금 요율이 너무 낮을 경우 경제적 유인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1문단에서 ‘직접 규제는 ~정부가 직접 단속하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런데 A국에서 ○ ○ 음료수 빈 병을 소비자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므로 이는 직접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단속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이 많이 소모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을 보면 ‘수거료 요율이 높으면 불법적인 무단투기가 성행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B국이 현재보다 쓰레기 수거료 요율을 올린다면 B국의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금전적 부담이 더욱 커져서 쓰레기 불법 배출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A국에서 ○ ○ 음료수 판매 가격은 500원인데, 동일한 음료수를 B국에서는 550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B국에서는 소비자가 빈 병을 반환하면 50원을 돌려주고 있으므로 이는 소비자 예치금제도를 시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B국이 소비자 예치금 50원을 음료수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음료수의 가격은 500원이 될 수 있어 A국의 음료수의 가격과 동일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을 보면 수거료 요율이 높으면 금전적 부담을 느낀다고 했으므로, C국에서 쓰레기 수거료를 올해부터 인하했기 때문에 C국 국민들이 느끼는 쓰레기 배출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1문단과 6문단을 보면 저감시설 보조금이 간접 규제의 한 방법으로 경제적 유인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C국은 공장에 매년 저감 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저감시설 보조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C국이 생산자가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투자를 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기**

7문단의 ‘한계피해비용곡선(MDC)과 한계저감비용곡선(MAC)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오염 배출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지점에서의 금액을 보조금으로 결정하고 오염 배출량이 최적 수준이 되도록 유도한다’를 볼 때 a는 정부가 오염 배출량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금액이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3문단의 내용을 보면 생산자의 한계저감비용은 오염 물질 배출량에 해당하는 한계저감비용곡선에서의 금액이다. 따라서 배출량이 b와 c일 때 한계저감비용곡선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c에서보다 b가 더 높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7문단의 ‘한계피해비용곡선(MDC)과 한계저감비용곡선(MAC)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최적 수준이 되도록 유도한다’를 보면 정부는 a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과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오염 물질 배출량을 사회적 최적 수준인 b로 유도하게 되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 배출량 ep2에 부과금 t를 곱한 ~배출부과금을 지불해야 하고’를 보면 이 경우의 배출부과금은 정부가 정한 부과금인 a와 오염 물질 배출량인 c를 곱한 면적인 ㉡+㉢+㉣+㉤가 되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을 보면 생산자가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데 필요한 저감비용은 줄어든 오염 물질 배출량에 해당하는 한계저감비용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는 한계저감비용곡선의 아랫부분의 면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오염 물질 배출량을 c에서 b로 줄이는 데 필요한 저감비용은 c에서 b의 한계저감비용곡선의 아랫부분의 면적인 ㉢이므로 적절하다. ⑤ 위 그래프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보조금은 저감보조금으로, 6문단에서는 ‘저감보조금제는 정부가 지정한 배출 상한 기준보다 적은 양의 오염 물질을 배출할 경우 배출 상한 기준과 실제 배출량의 차이에 대해 1단위당 특정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다’와 같이 저감보조금을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 정부가 지정한 배출 상한 기준이 c이고 지급하는 보조금이 a라면 c에서 b로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일 때 받는 보조금은 c에서 b만큼의 배출량에 보조금을 곱한 금액인 ㉢+㉣이므로 적절하다.

**[고전소설]**

[42 ~ 45] <출전> 작자 미상, 「유문선경」

**42.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장발이 재주 있으나 어찌 대적하리오.’, ‘제 비록 천하 명장이요 만고 영웅인들, 당시 창업 주씨를 어찌 대적하며 유문성을 당하리오.’ 등에서 편집자적 논평을 활용하여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적절하다.

① 꿈과 관련된 장면은 나타나지 않으며, 현실과 교차되는 부분도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도술을 사용하고 뛰어난 무예를 가진 인물인 유기, 유원수를 초월적 존재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인물들이 갈등을 증폭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인물의 외모를 과장되게 표현하여 인물을 희화화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공간적 배경에 대한 구체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과거를 암시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3. [출제의도] 내용의 사실적 이해**

주원수는 달항에 대한 처분을 유원수에게 맡길 뿐 달항에게 관용을 베풀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유기는 장발과의 싸움에서 수세에 몰리자 도술을 써서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이장이 여자라는 사실은 도망가는 달항이 잡힌 후의 장면에서 ‘그제야 이장이 여자인 줄 알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달항은 장발이 죽은 뒤 ‘이때 달항이 할 수 없어 ~복문을 향하여 도망하거늘’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이장이 유원수에게 ‘만일 나를 놓지 아니하시면 필연들이 다 위태할 것이니 바빠 놓으소서.’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말을 통해 이장이 유원수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 감상하기**

㉠의 본전에서 유원수가 달목을 질책하는 장면은 유원수가 장발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 적대 세력의 우두머리 달목을 벌하려는 것에 해당한다. <보기>에서 주인공이 승리한 후 독자의 긴장감이 이완되고 감동과 대리 만족을 느끼게 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유기는 보조 인물로서 ㉠에서 유기는 장발과 맞서 싸우면서 도술을 행하는 등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장발에게 열세임을 확인하고 본진으로 몸을 피하는데, 이때 유기가 장발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유원수밖에 없다고 말하므로 유원수의 뛰어난 능력에 대해 독자가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은 적절하다. ② ㉠에서 유원수가 전장에 나가려고 하나 ㉢에서와 같이 이장이 출전하여 위기에 처함으로써 유원수의 등장이 지연되어 독자의 기대감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 유원수는 장발과 대결한다. 하지만 장발과의 싸움은 삼십여 합, 오십여 합에 이르도록 쉽게 승부가 나지 않는다. <보기>에 의하면 이때 독자는 주인공의 대결 장면에서 흥미와 긴장감을 가지고 주인공의 승리를 기대하게 될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에 따르면 ㉠의 대결에서 유원수가 장발을 물리치지 전까지 독자의 긴장이 지속될 것이고 유원수가 승리한 후 그 긴장이 이완될 것이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파악하기**

㉠은 사건의 흐름상 이장이 장발의 공격에 의해 죽을 뻔하다가 유원수에 의해 간신히 구출되어 목숨을 구하게 된 상황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남.’의 뜻을 가진 ‘기사회생(起死回生)’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다.

① 허물을 고치고 착하게 됨을 뜻하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는 말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하는 일 없이 놀고먹기만 함을 뜻하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어떤 무리를 한꺼번에 모조리 잡음이라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